

조각보 의미 분석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 방안

김 여 경*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Patchwork Wrapping Colthes (*Jogakbo*)

Yeo Kyung Kim* · Na Young H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09. 2. 9, 심사(수정)일: 2009. 3. 10, 게재확정일: 2009. 3. 15)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product development through an organic link with multi-faceted analysis on the archetype of traditional costumes culture. In order to find ways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Jogakbo* was selected, and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1. Analysis on the types of *Jogakbo* products sold in the market shows that there are not only living, stationary, and fashion items, but also DIY packages. In terms of materials used, most of these *Jogakbo* products were made of fabric or mixture of different materials. These products displayed similar tendency by reflect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ogakbo*.

2. This study analyzed the color, surface composition, material, manufacturing, and usage of *Jogakbo*. The color of *Jogakbo* is mostly composed of mono tone colors or *Obangsac*(five-element colors). The mono tone colors carries environmentally friendly meaning as it is using the natural color and *Obangsac* means harmony. Moreover, the surface composition of *Jogakbo* represents the expansion through connection and its material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recycling. Manufacturing of *Jogakbo*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fortune-wishing characteristics, decorative function, it also gives a gratification of handcraft. The usage of *Jogakbo* is a multi-functional article whose form is determined by an item that is held inside it.

3. Through the analysis on *Jogakbo*, this study presents the baby wear in relation to the eco-friendliness of cololrs, brooch sets using the surface composition, dresses using recycling fabric, children's educational instruments with educational significance, as well as multi-functional packages in regards to usage of *Jogakbo*.

Key words: cultural industry(문화산업), cultural product(문화상품), culture archetype(문화원형), cultural identity (문화정체성), *Jogakbo*(조각보)

I. 연구 목적 및 의의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세계의 복식은 서양복식으로 일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로 지역별 전통복식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오리엔탈리즘, 에스닉, 웰빙, 로하스 등의 패션 트렌드 속에서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인도의 살와르카미즈 등 아시아 각국 전통 복식 원형은 패션산업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¹⁾

Issey Miyake나 Rei Kawakubo 같은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이 전통 기모노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일본패션을 세계 패션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1980, 90년대에 한국 디자이너들도 전통복식의 요소들을 활용한 작품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곡선이나 문양, 색 등을 응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²⁾ 최근에도 전통적인 문양이나 소재, 형태 등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³⁾ 외형적인 특징을 반영할 뿐 원형에 내재된 문화정체성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한국 복식의 문화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조각보를 대표적인 복식 문화원형으로 선택하였다. 조각보는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하여 형겅으로 네모지게 만든 보자기의 일종으로 여러 조각의 형겅을 대어서 만든 것이다. 궁중보다는 주로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각보의 조형성은 상당히 일찍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복식디자인을 위한 원형으로 각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색채⁴⁾, 섬유공예⁵⁾, 패키지 디자인⁶⁾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조각보는 의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소재, 색, 구성법 등의 부분에서 한복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화상품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 문화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상품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문화원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복식문화원형으로 조각보를 선택하였으며 시장 조사를 통하여 조각보 문화상품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조각보에 관련된 문헌자료와 연구논문, 도록을 참고로 조각보에 대한 색, 소재, 구성, 제작과 사용에 따른 의미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에 대한 디자인 계획을 세운 후 일러스트로서 문화상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식 문화원형의 개념

문화원형은 '문화'와 '원형'이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다. 문화의 개념은 상당히 복잡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을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오늘날 통용되는 문화의 개념은 E. Tylor의 인류학적 개념으로 인류가 자연을 지배하고 순화시키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낸 총체적인 삶의 결과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⁷⁾ 또 다른 개념은 문화를 한 집단의 역사적 생활구조에 연원을 둔 체계로서 언어, 습관, 전통, 제도 뿐 아니라 집단이 공유해온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문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다.⁸⁾ 이러한 개념에서 문화의 범주는 일상에서 영위되는 생활문화까지 확대되면서 복식도 한 집단의 상징체계를 반영한 문화의 일부분으로 포함하게 되었으며 상류의 고급문화 뿐 아니라 대중문화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문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문화의 속성은 첫째, 문화는 학습된다. 둘째, 집단성원에 공유된다. 셋째,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다. 넷째, 문화는 변화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원형에서의 문화 역시 이러한 속성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해당 문화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⁹⁾

최근 문화산업에서 통용되는 문화원형이라는 용어는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적인 정체성, 나아가 고유성을 가진 문화에 대한 원천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제시되었다.¹⁰⁾ 문화원형에서 사용되는 원형(元型, Pattern)의 사전적 의미는 주물이나 조각물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형(型, Form)을 말하며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산출물을 찍어낼 수 있는 틀을 뜻한다. 또 다른 의미의 원형(原形, Originality 또는 Archetype)은 고유성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디 모양'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는 틀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성 변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¹¹⁾ 현재 문화산업에서 문화원형에 사용되는 의미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도 문화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개념에서 문화원형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특히 복식에 한정하여 복식문화원형이라고 지칭하였다.

2.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특성

문화는 현재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각 나라에 따라 산업적 위상이 다르고 문화라는 개념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국가마다 범위와 규정이 상이하다. 주로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 영국에서는 창조산업, 한국에서는 문화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또는 디지털개념을 부각시켜 디지털 문화컨텐츠산업 등으로 부르고 있다.¹²⁾

한국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년 제정, 2002년 개정, 2006년 재개정)에 “문화상품의 개발과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었다.¹³⁾ 출판·인쇄물, 방송 프로그램,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 공예품,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가리킨다. 복식분야는 문화산업 내에서 출판에서부터 방송, 캐릭터상품,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되어 있으며 작은 범위로는 전통공예품에 속해있다.

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화이자 산업의 문화화를

추구한다. 문화의 산업화는 문화의 생산과 저장, 유통체계를 산업화하는 것이고, 산업의 문화화는 산업 제품에 문화적 요소를 더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제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문화원형의 산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문화원형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로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에 집중되었다.¹⁵⁾ 최근에는 영화, 음반, 게임물, 출판물, 방송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공연 등의 창작소재 관련 기획 및 개발, 문화원형을 활용한 소품, 시청각 자료 제작, 이미지 구현을 위한 문화원형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¹⁶⁾

문화상품은 문화와 상품을 합친 용어로 최근에는 문화(culture)와 상품(product)을 합쳐 컬덕트(culduct)라고도 한다. 문화가 자체적으로 갖는 엄청난 파급효과로 인하여 적은 비용으로 무한복제 및 재창조(one-source, multi-use)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며¹⁷⁾ 이러한 점에서 산업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문화상품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 문화를 전파하고 대중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예서 주목된다. 일례로 대장금(MBC, 2003. 9-2004. 3)은 드라마의 성공을 발판으로 출판, 공연,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재생산되었으며 일본과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복,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유발시켜 국가와 제품의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¹⁸⁾ 따라서 문화상품은 국가 이미지 개선, 홍보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용성 뿐 아니라 국가의 공익적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Ⅲ.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화 방안

1. 조각보 문화상품 사례 분석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조각보 원형을 활용한 문화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상품 조사를 위하여 뮤지엄 샵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의 문화상품점 사이트와 현대미술관,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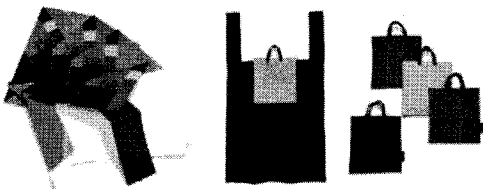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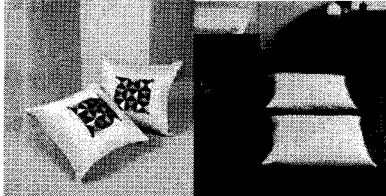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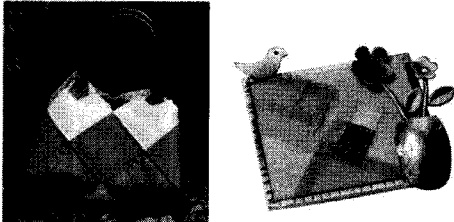
수공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에 입점한 아트샵 코리아의 사이트, 리움과 호암미술관의 사이트를 통해 상품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사동에 위치한 공예전문점 중에서는 우리세계, 습리와 한국관광명품점을 조사하고 쇼핑몰의 상품정보를 분석하였다. 공예전문 쇼핑몰로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대표적 공예사이트로 소개된 곳 중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썬크코리아, 샵오브코리아, 우리규방, 비움의 상품 정보를 분석하였다. 시장조사의 기간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이었으며 조사된 상품 수는 총 470점 이었다.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판매처별로 뮤지엄 샵, 공예품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로 분석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뮤지엄 샵의 문화상품은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성격을 반영하거나 전시와 연계하여 상품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국립민속 박물관에서는 『수북,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기

획전시와 관련하여 조각보의 기복(祈福)적 의미를 활용한 문화상품이 개발되었다. 리움 미술관은 사용성에 따라 형태를 변화시키는 다용도가방을 판매하였다. 뮤지엄 샵은 구매자가 관광객이 많으므로 휴대가 간편하고 비교적 형태가 작으며 가격이 저렴하였다.<그림 1>¹⁹⁾

인사동의 공예품전문점에서는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이 윈도우를 장식하는 VP(Visual Presentation)에 해당하는 중요한 상품이었다. 특히 우리세계는 프랑스 파리의 2008 메종 & 오브제(Maison & Objet 2008)에서 모시와 실크를 사용한 홈인테리어 제품을 출품하여 조각보 문화상품의 세계적인 상품성을 확인하였다.²⁰⁾ 공예품 전문점에서는 수공예적인 쿠션, 러너, 파티션 등 비교적 고가의 인테리어 소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품들은 가두상점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 가판대에서는 저가의 필통, 핸드폰 고리, 주머니 등의

<표 1> 판매처별 조각보 문화상품의 특징 및 사례

판매처	특징	상품 사례
뮤지엄 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성격 및 기획전시 주제와 부합 • 제품사이즈가 작음 	 <p><그림 1> 국립민속박물관, 리움박물관</p>
공예전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수공예 제품 • 쿠션, 방석 등 제품사이즈가 큰 인테리어 소품 	 <p><그림 2> 우리세계, 습리</p>
온라인 쇼핑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격, 소재, 품질의 상품 개발, • 비교적 저가 제품 • 주문식 상품 가능 • DIY상품 개발 	 <p><그림 3> 우리규방</p>

상품이 판매되었다. 온라인 공예쇼핑몰의 저가품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소재와 디자인, 봉제 완성도가 조악하였다.(그림 2)²¹⁾

온라인 공예 쇼핑몰에서는 생활소품, 문방소품, 인테리어소품, 패션소품 등이 개발되어 있었다. 사이트에 따라 가격과 소재,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 여러 사이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에 따라 주문식 생산도 가능하였으며 특히 와 같은 DIY 패키지 상품이 재료와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소비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3)²²⁾

조각보를 이용한 문화상품을 용도와 소재에 따라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용도별로 생활소품, 문방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소품 등이 개발되었는데 생활소품이 가장 다양한 아이템으로 개발되었다. 문방소품류도 생활소품류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으며 다이어리, 펜 등 현대적인 재료에 조각보의 면구성을 대입한 것이 많았다. 인테리어 소품은 주로 섬유로 만들어 조각보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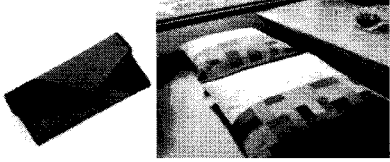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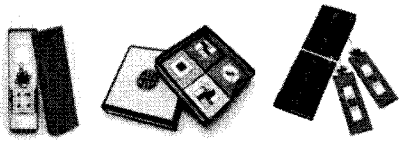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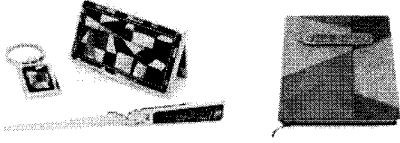
패션상품은 가방이나 지갑류, 스카프, 장신구 등의 소품형태가 대부분으로 보다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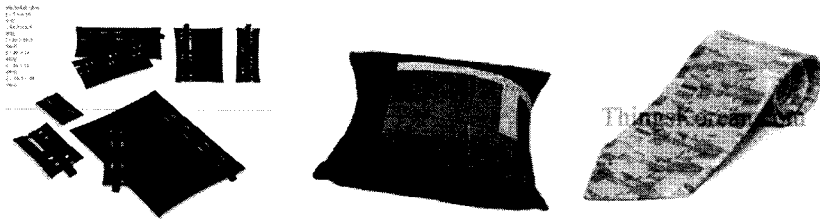
소재는 섬유류를 활용하거나 섬유와 기타소재를 혼합, 또는 비섬유류의 소재로 만든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섬유는 주로 한복용 소재로 사용되었던 견 또는 화학섬유, 면, 마 등이 사용되었으며 기타로 자개, 종이 등이 사용되었다. 섬유소재로 만들어진 것은 주로 패치워크, 누비, 잣털림 등의 전통 조각보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조각보의 원색적인 다색 구성이나 면구성을 활용한 예가 많았다.(그림 4)²³⁾

섬유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섬유와 비섬유를 혼합한 형태가 많았다. 섬유재료로 조각보 형태를 만들고 비섬유부분에 핸드폰의 고리, 냉장고의 자석과 같이 현대적인 재료로 기능적인 면을 추구하였다.(그림 5)²⁴⁾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개, 종이 등의 비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각보의 색이나 면구성 등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대부분 냉장고자석이나 열쇠고리, 명

<표 2>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용도 및 소재 분석

	생활 소품	문방 소품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	상품 예시
섬유	컵받침 실내화	책갈피 필통	테이블러너 쿠션 방석 파티션 이불	지갑 가방 주머니 넥타이 스카프 조끼	 <그림 4> 서울역사박물관, 우리규방
섬유·기타 혼합	냉장고자석 열쇠고리 핸드폰줄 부채	카드	액자	귀고리 목걸이 브로치	 <그림 5> 아트샵 코리아
비섬유	자개 거울 열쇠고리 핸드폰줄 명함집 컵받침	봉투 수첩 지칼 필통 펜	조명	넥타이핀	 <그림 6> 샴오브코리아,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7〉 조각보의 색·제작방법·면구성 활용 사례



〈그림 8〉 조각보의 다색구성과 단색구성

함집, 핸드폰줄 등의 비교적 사이즈가 작고 저렴한 상품이 많았다.〈그림 6〉²⁵⁾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현재 개발되어 있는 조각보의 원형을 활용하는 방법은 소재, 기법, 구성방법 등 단조롭고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조각보를 활용한 문화상품이 보다 경쟁력을 지니기 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과 차별화가 요구된다. 주로 색 구성, 직선적인 면구성 등의 조형적 측면에만 치중하였으며 상품에 단순히 접목하고 있어 조각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7〉²⁶⁾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서 현대적인 재료에 전통문양만 응용하거나 복제하여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핵심적인 개념이다.²⁷⁾ 따라서 복식원형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복식원형의 내적 의미와 연계된 문화상품이 요구된다.

2. 조각보 의미 분석

1)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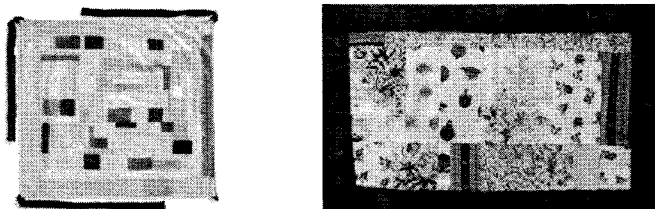
조각보의 색은 〈그림 8〉²⁸⁾와 같이 다양한 색을 사용한 다색(多色)구성과 무채색 위주로 농담의 변화를 추구한 단색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색구성은 대개 적(赤), 황(黃), 청(靑)색계의

오방색을 활용한 것으로 오방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조각보에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된 것은 조화 속의 일치, 전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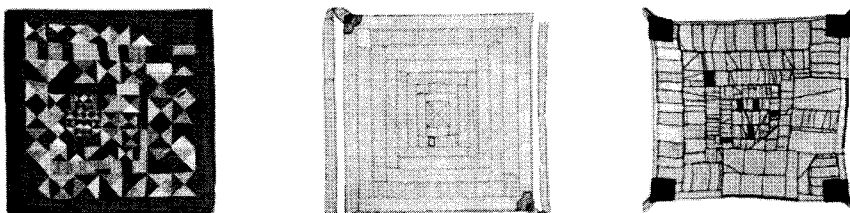
단색구성은 소재 본연의 색인 소색(素色)을 기본으로 대개 농담만 달리한 동일계열의 색으로 만들어져 있다.³⁰⁾ 소색을 기본으로 한 조각보의 색은 한국인의 자연친화적인 미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 단색구성의 대부분은 모시나 옥양목과 같은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것으로서 천연 염료에 발색성이 좋지 않은 식물성 소재의 재료적인 특성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염색하지 않거나 단색의 조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세탁과 관리가 용이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2)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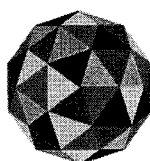
조각보는 〈그림 9〉³¹⁾과 같이 대개 의복의 제작과정에서 버려진 천 조각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의복구성 과정에서 나온 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조각은 이어 붙여 조각보로 만들었고 잊지 못할 정도로 작은 조각은 삼각형으로 접어 잣물림으로 사용하였다고



〈그림 9〉 조각보의 재활용 소재



〈그림 10〉 다양한 면구성 방법을 통한 조합과 확장



〈그림 11〉 서울디자인올림픽 심볼

한다.³²⁾

유교적 관념 아래에서 검소와 절약은 여인들의 중요한 덕목이었고³³⁾ 의복 제작은 여성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으므로 조각 소재를 이용하여 보자기를 만드는 것은 근검과 절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의복의 마름질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의 소재를 모아서 조각보를 만드는 것은 현재 패션트렌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활용(Re-cycle)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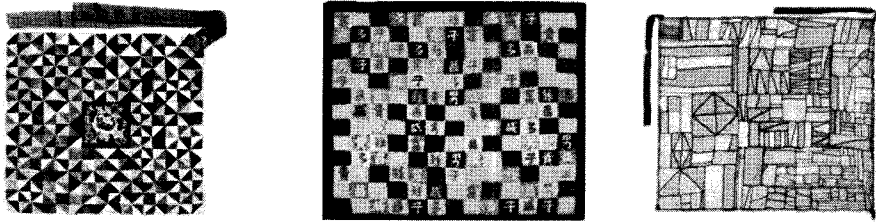
3) 면구성

전통 한복 구성은 의복 제작 시 직선재단을 하므로 남은 조각이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이다. 따라서 조각의 연결선은 직선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보인다. 또 치밀한 구성이나 비구상의 조형은 그것 자체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특히 모시조각보와 같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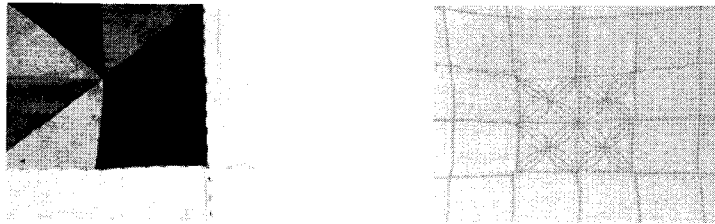
치는 소재에서 나타나는 자유스러운 조합과 불규칙한 구성은 추상적인 현대미술과도 비교되며 각광을 받았다.³⁴⁾ 실제 조각보 중에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지 않고 일부러 조각내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 심미적인 면이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⁵⁾

자투리 천을 모아 면을 구성함으로써 평면의 조각은 더 큰 조형물로 확장된다. 천조각의 조합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사각형을 만드는 형태와 가운데 중심을 두고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확대되는 방사형 구성, 일정한 크기의 원형이 겹치도록 구성된 형태 등이 있으며 일정한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결합한 형태도 있다. 〈그림 10〉³⁶⁾

조각을 연결하여 면을 구성하는 과정은 조각의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조형으로 창조되는 의미를 지닌다. 최근 개최되었던 서울 디자인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조각보가 심벌로 사용되었다. 〈그림 1



〈그림 12〉 제작에 담긴 기복적 의미



〈그림 13〉 조각보의 봉제를 통한 장식

1)³⁷⁾ 는 조각보의 조각이 결합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창조한 것을 모티브로 제시한 서울 디자인 올림픽의 심벌이다.

4) 제작

조각보에서 사용되는 바느질은 홈질, 감침질, 시침질, 박음질, 상침 등이 있으며 조각을 잇는 바느질 방법은 대부분 감침질을 사용한다. 이러한 바느질은 단순히 봉제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먼저 침선 교육과 공예적 만족으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 말기의 『조선재봉전서』중 조각보 제작에 관하여 ‘베 조각 모는 법’, ‘작은 베 조각을 한데 모아쓰면 긴요하고 또 아해들 감침질과 박음질 공부도 하거니와³⁸⁾’라는 기록이 있다. 조각보의 제작을 통해 기초적인 침선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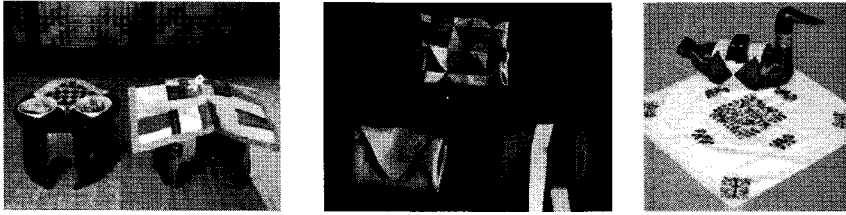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되었던 조각보의 제작은 기복(祈福)적 의미를 가진다. 출생 후 백일을 맞은 아이에게 백 집에서 조각을 얻어 색동저고리를 만든다고 한바와 같이³⁹⁾ 조각을 잇는 제작과정이 복을 염원하는 치성행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길상의 미의 꽃무늬나 영지문, 박쥐문 또는 자식을 기원하는 문자문양을 직접 수놓아 기원하는 바를 표출하기도 하였다.(그림 12)⁴⁰⁾

조각보의 봉제를 위한 단순한 바느질은 숙련의 정도에 따라서 장식적 요소로 사용되었다. 소박한 감침질이나 상침 바느질은 조각보의 봉제과정을 시각적으로 연상하도록 하였고 바탕 직물의 색과 대비되는 봉제선은 조각보의 구성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⁴¹⁾ 모시나 비치는 소재 경우에는 봉제선과 같이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기도 하였다.(그림 13)⁴²⁾

5) 사용

조각보는 보자기의 한 종류로서 일시적인 보관이나 운반 이외에도 가리개, 덮개, 받침대 및 장식, 종교적인 용도로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혼례용 보자기, 상보자기, 예단보자기로 사용되거나 종교 의식에 쓰이는 보자기, 장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평면의 보자기는 싸는 물건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 비구축적 형태로 용도에 따라 다기능(multi-function)적이다. 특히 서양의 트렁크와 달리 보자기는 사용이 끝나면 부피를 줄여 공간 확보가 가능하였다.⁴³⁾

혼인 시에도 예물을 보낼 때 혼인보로 예물과 편지를 싸서 예의를 표현하였다. 『사소절』에 보면 이불과 베개, 요 및 요강 등을 수건(帕)으로 덮어 보이지



〈그림 11〉 조각보의 다기능성과 예의

않게 정돈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⁴⁴⁾ 보자기 어원을 보자의(褌衣)에서, 탁자를 감싸는 보자기를 탁의(卓衣)라고 칭하면서 의복이 몸가짐에 대한 예의와 마찬가지로 보자기 역시 물건에 대한 예의를 의미한다.〈그림 11〉⁴⁵⁾

3. 문화상품 개발

조각보를 색, 구성, 소재, 제작, 사용에 따른 특성과 그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추출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한 가지씩 6가지의 문화상품을 제안하였다. 〈사례 1〉에서는 조각보 색에서 나타나는 자연친화적인 의미를 활용하여 친환경 유아용 의복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조각보 상품이 오방색으로 대표되는 다색구성을 활용한 것과 달리 자연친화적이고 의복관리에 실용성을 가지는 단색구성을 활용하였다. 소재는 염색이나 탈색하지 않은 유기농 면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기농 면은 생산과 가공에서 친환경적이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아동복이나 속옷의 소재로 적합하다. 제시된 의복은 상황에 따라 Cross-coordination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유아의 성장속도와 상황에 따라 의복의 사용기간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2〉는 브로치 세트로서 여러 개의 조각 브로치를 창작자가 임의적으로 조합하여 상황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조각이 제작자 및 사용자의 임의적인 조합에 의해 전체적인 조각보로 완성되는 조각보의 구성적인 의미를 활용한 것이다.

〈사례 3〉은 조각보의 소재적 재활용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샘플용 원단을 상품의 소재로 활용한

상품을 제안하였다. 원단시장에서 배포되는 샘플용 원단은 원단업체에서 제품의 홍보와 디자이너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해당 시즌이 지나면 폐기되는 일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재활용이 필요하다. 상품의 형태는 조선 후기 치마형태를 차용하였으며 직선재단의 구성법으로 서양의복구성에서 발생하는 원단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였다.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착용자의 체형과 의도에 따라 사이즈와 형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4〉는 조각보 제작과정이 교육적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유아용 문화학습 교구를 제안하였다. 사례에서는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직포와 털실용 바늘, 실을 이용한 가방만들기를 제시하였다. 문화산업의 소비자로서 유희적 인간(Homo Ludence)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놀이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상품은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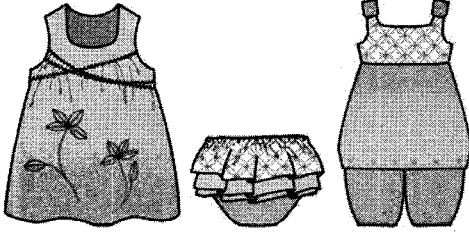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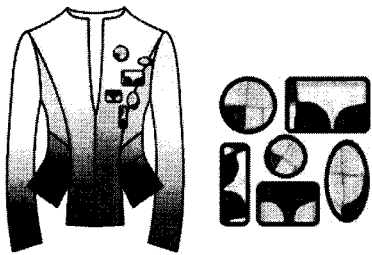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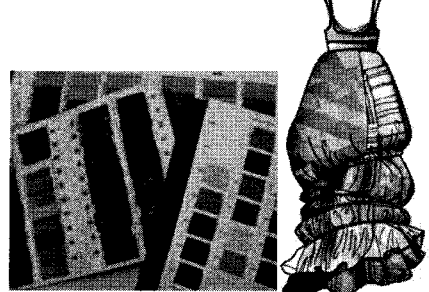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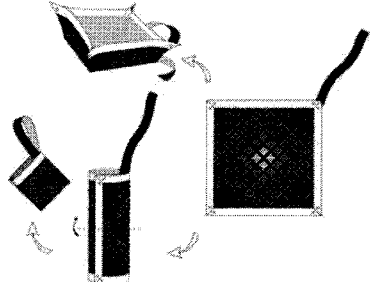
〈사례 5〉는 조각보의 사용적 측면을 활용하여 다기능 패키지(Multi-funtional Package)를 제안하였다. 조각보가 다양한 기능성을 지니고 내용물이나 사용여부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 비구축적인 형태임을 활용하였다. 평면의 조각보 모서리에 스냅장치를 이용하여 용기형태로 변형가능하고 사용 후에는 접어서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복식문화원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각보의 의미 분석에 따라 문화상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각보 원형은 한국 문화상품의 주요한 원천자료

<표 3> 문화상품 제안 사례

문화상품 제안	조각보 내적 의미에 따른 개발 의도	사례 예시
1. 친환경 유아용 간이복	색채의 친환경성, 의복 관리의 실용성	
2. 브로치 세트	조각 브로치의 임의적 조합을 통한 결합과 확장	
3. 원피스	샘플용 소재조각을 이용한 재활용	
4. 유아용 교구	조각보 제작을 통한 바느질 교육	
5. 다기능 패키지	조각보 사용에 따른 다양한 기능과 비구축적 형태	

로서 다양한 내적 의미로 해석된다. 조각보의 색은 주로 원색계통의 다색구성과 무채색계열의 단색구성으로 되어있다. 무채색계열의 단색구성은 자연친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원색의 다색구성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조화를 의미한다. 작은 조각을 연결하여 완성하는 조각보의 구성은 결합을 통한 확장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의 직선적인 면구성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 조각보는 의복제작과정에서 나온 조각의 천으로 만들어 재활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평면의 사각형인 조각보는 담는 내용물에 따라 형태와 사용이 결정되며 다기능적이다.

앞에서 제시한 조각보의 색, 면구성, 소재, 제작, 사용성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분석과 연계하여 5가지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였다. 색이 가지는 자연친화적 의미에서 친환경 유아복을, 면구성의 결합을 통한 완성의 의미에서 조각 브로치 세트를, 재활용 소재의 의미에서 샘플용 원단을 활용한 드레스를, 제작의 교육적 의미에서 아동용 바느질 교구를, 다기능적인 사용성에서 다기능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상품화를 위한 원형의 분석과 전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므로 상품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제한점이었다. 조각보라는 복식 원형의 일부분을 통한 시도였고 조각보가 의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향후 한국복식원형 전반으로 연구범위를 넓혀 문화상품의 외연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채금석 (2007).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9/10), p. 100.
- 2)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279.
- 3) 김소형 (2005). *패션문화상품디자인 개발-전통조각보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미 (2006)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4).
- 최윤희, 은영자 (2005). 조각보의 면구성과 색채를 응용한 의복의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 4) 김현호 (1984). *조선시대 후기 보에 나타난 색채의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김인자 (1994). *조각보를 모티브로 이용한 색과 면의 구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5) 이상영 (1997). *조각보 구성에 의한 현대자수의 조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지은 (2000). *조각보를 소재로 한 타피스트리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 이은정 송미령 (2000). *조각보의 문양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개발*. *디자인포럼21*, 3.
- 6) 이선화 (2003). *문화상품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전통색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7) 배영동 (2005). 문화컨텐츠화 사업에서 '문화원형' 개념의 합의와 한계. *인문콘텐츠* 6, p. 41.
- 8) 김민수 (2005).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서울: 숲, pp. 30-32.
- 9) 배영동 (2005). *앞의 책*, pp. 43-44.
- 10) *위의 책*, p. 40.
- 11) 김교빈 (2005).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6, p.11.
- 12) 김교봉 (2006). *다중사회의 문화산업론*. 서울: 박이정, pp. 21-22.
- 13) 문화관광부 (2002).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pp. 4-5.
- 14) 백승정 (2007). *문화컨텐츠시대의 디자인*. 서울: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p. 15.
- 15) 박덕규 외 (2006). *한국 전통문화 원형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보고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p. 9.
- 16) *KOCCA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culturecontent.com>
- 17) 심상민 (2004). 창작과 놀이가 곧 생업이 되는 미래문화 산업. *계간사상* 문화, p. 138.
- 18) 연합뉴스(2004. 7. 23) 씨네 21. *대만 <대장금>신드롬 한류 재연*. 작성일 2004. 7. 23. 자료검색일 2008. 12. 20. 자료출처 <http://www.cine21.com>
- 19)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nfm.go.kr>
Samsung Museum of Art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hoam.samsungfoundation.org>
- 20) 윤주희 (2008. 8. 12). *우리세계, 전통 공예로 홈데코레이션시장 두드린다. 에이빙*. 자료검색일 2008. 11. 24. 자료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fashion>
- 21) 윤주희 (2008. 8. 12). *앞의 글*. *Story Shop Online*. retrieved 2008, November 24. from <http://shopping.daum.net>
- 22) *Woorikyubang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woorikyubang.co.kr>
- 23) *Seoul Museum of History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museum.seoul.kr>
Woorikyubang Online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woorikyubang.co.kr>
- 24) *Art Shop Korea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artshopkorea.co.kr/>
- 25) *Shop of Korea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shopofkorea.com/>

- Seoul Museum of History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museum.seoul.kr/>
- 26) National Museum of Korea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museumshop.or.kr/>
Vium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8, from <http://www.vium.co.kr/>
Shop of Korea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7, from <http://www.shopofkorea.com/>
- 27) 백승정 (2007). *앞의 책*, pp. 178-179.
- 28) 위의 책, p. 54.
위의 책, p. 31.
- 29) 허동화 (1988). *옛 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출판부, p. 16.
- 30) 허동화 (2001). *이렇게 고운색*. 서울: 한국자수박물관출판부.
- 31) 온양민속박물관 (2007). 아름다운 우리 옛 살림-여인의 향기, p. 50.
위의 책, p. 40.
- 32) 허동화 (199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서울: 현암사, pp. 289-290.
- 33) 소혜왕후 한씨, 송시열, 김종권 역 (1994). *내훈·계녀서*. 서울: 명문당, pp. 7-12.
- 34) 정지영 (2007. 3). *보자기-문화를 잇는 다리, 월간 크라트*, 작성일 2007년 3월호, 자료검색일 2008. 11. 24. 자료출처 <http://moazine.com/magazine/>
- 35) 온양민속박물관 (2007). *앞의 책*, p. 11.
- 36) 위의 책, p. 48.
위의 책, p. 14.
허동화 (2001). *앞의 책*, p. 73.
- 37) Seoul Design Olympiad Homepage Online, retrieved 2008, December 10 <http://sdo.seoul.go.kr>
- 38) 김숙당 (1995). *조선재봉전서*. 서울: 민속원, pp. 99-100.
- 39) 김정아 (2003).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 46.
- 40) 온양민속박물관 (2007). *앞의 책*, p. 36.
위의 책, p. 30.
위의 책, p. 54.
- 41)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114.
- 42) 허동화 (2001). *앞의 책*, p. 40.
위의 책, p. 75.
- 43) 이어령 (2007). *우리문화 박물관지*. 서울: 디자인 하우스, pp. 123-125.
- 44) 이덕무, 김종권 역 (1993). *사소절*. 서울: 명문당, p. 216.
- 45) 허동화 (2001). *앞의 책*, p. 79.
위의 책, p. 80.
위의 책, p. 68.